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4월 10일(금)
..(음력 3월 18일)..

Пятница
10 апреля 2020г.
№ 14(11688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약국에서 차를 선 사람들이 1.5m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11명 발생

사할린주 정부 비상대책본부 실무자에 따르면 4월 8일 기준 사할린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11건이 기록되었고 이 중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새로운 5명의 확진자는 미국, 브라질, 유럽 나라들을 다녀온 사람들이다.

사할린주 주택 공공사업부 장관으로 나탈리아 쿠프리나 임명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으로 4월 9일부로 나탈리아 쿠프리나가 임명되었다.

법률학을 전공한 쿠프리나는 2015년에 블라고웨첸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에서 초청하여 그동안 제1부시장으로 시 경제개발 감독을 담당했다. 새 장관의 주요 업무는 고체 폐기물 처리 개혁 문제와 주택 공공 분야에 개인 투자 유치에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한편 반년 만에 주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은 이미 3번째 바뀌었다.

안드레이 크루트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사장으로 부임

사할린주 토지 및 자산부는 4월 6일 단독 주주의 결정으로 안드레이 세르게예비치 크루트초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내 공항 시스템에서 그의 활동 기간은 거의 20년이나 된다. 2001년 쿠반 국립공과대학 졸업으로 '비행장 및 차량 도로 개발과 건설'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 그는 2019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핸들링'의 부사장 역임.

사할린주, 2300톤의 새우 어획

사할린·쿠릴 지역 관리국에 보고에 따르면 올 1/4분기 사할린주 어로업체들이 새우 총229만8천976톤을 어획했다. 북극새우는 대체로 고가의 해양생물자원 어획의 주요 종이다. 올 초부터 사할린주의 왕새우 어획량은 9만6천213톤을 밀돌았다.

사할린 주민 2,797명 급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

지난 한 주간 사할린 및 쿠릴 지역의 주민 2797명이 급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은 대부분의 연령이 14세 이하로 전체 환자 중 58%인 1618명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주간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146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러시아 소비자감독청 사할린 지부에 따르면 독감 A형이 15명, 독감 B 형이 9명으로 총 24명의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급성 장염으로 77명의 환자 발생, 이외에도 4명의 아동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81명이 수두에 감염되었다.

사할린주 주민들 4월 15일까지 사회 지원금 받게 된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회의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는 매월 30일까지 지급된 지원금을 4월에는 15일까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사회 지원책을 적용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은 시계처럼 작동해야 한다. 고령세대,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때에 전액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사할린주는 추가로 대조국전쟁 참전자들은 연방 지원금으로 7만5천루블리를 각각 받고, 노동전선 참전자, 레닌그라드 봉쇄 시기의 주민, 파시즘의 미성년 포로에게는 5만 루블리를, 전쟁 시기에 태어난 주민들에게는 1만 루블리를 지급한다.

모든 사회적 급여와 혜택은 자동적으로 9월30일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이를 위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소득 명세서와 다른 문서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이 이 지원책 또는 처음으로 특별 지원책에 대한 신청 등록을 하려면 전자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할린 사회복지부 핫라인 전화는 8-800-201-00-99로 문의, 전화 접수는 매일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한다. 이미 핫라인을 통해 전 통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지원책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선적인 필수품 배달에 대한 신청 등록과 일상의 질문으로 도우며,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돕고 있다. 현재 5명의 담당자와 심리학자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곧 콜 상담자를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라며 주 사회복지부 엘레나 카시야노와 장관이 덧붙였다.

4월 3일부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연금은 가정방문 해 전 달하는데 이는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령세대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다.

사할린주 88개 방면 경제활동 중단

사할린주에서 88개 방면의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령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서명했다. 지역에서 방침 강화 정책 시행 기간인 4월 30일까지 금지 조치를 도입한다.

제한하는 분야는 무역, 서비스, 오락, 교육, 문화, 스포츠 관련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된다.

그중에서 음식점, 미용실, 유흥업소, 취미 강습소의 활동을 중지한다. 폐쇄된 상점 목록에는 장난감,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액세서리, 스포츠용품, 기념품, 가구 판매점들이 올라 있다. 또한 일시 중지된 활동으로는 보건 및 체조 활동, 마사지 업소, 유치원 교육, 스포츠 용품 대여, 여행사와 관광 안내 활동,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고문서보관소, 주 문화교육 등의 활동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 주지사 및 정부의 웹사이트 <https://sakhalin.gov.ru/index.php?id=1004>에서 해당 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 목록을 볼 수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온라인 생방송으로 코로나19 관련 질의 응답 진행

4월 8일 15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과 온라인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에 대답했다.

주지사와 전문가의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의료상황과 사회적 지원, 학생과 대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지원 조치와 취업,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5개 지역에서 씨름 강습 개설 준비 중

사할린 한민족 씨름협회가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네웰스크, 홈스크, 그리고 홈스크구역의 피오네리 마을과 코스트롬스코예 마을에서 스포츠 강습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씨름 강습 활동은 4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할린 전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 정책에 따른 보건부의 조치에 따라 사할린의 모든 스포츠 시설들이 폐쇄 대상이 된 가운데 강습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씨름 강습을 위한 장소를 확보했고 강사들 과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한다.

씨름 강습이 폐쇄되는 동안은 강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강습생 연령은 12세-16세까지며 강습 등록을 위한 전화는 유즈노사할린스크- +7 999 088-13-60, 코르사코브- +7 962 109-37-77, 네웰스크- +7 914 092-84-99, 아니와- +7 924 480-89-56, 돌린스크- +7 900 426-78-08, 홈스크- +7

914 750-21-47, 코스트롬스코예- +7 924 186-33-30, 피오네리-+7 942 282-88-08로 연락.

사할린주 스포츠부의 특별 해제 조치 후에 사할린의 모든 스포츠 시설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씨름은 한민족의 힘겨루기 경기로서 모래로 덮힌 크지 않은 둥근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인다. 경기의 주요 핵심은 모래판에서 손과 발, 척추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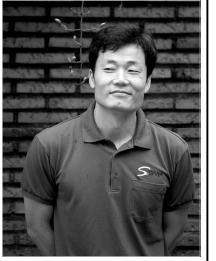
단련된 기술로 승리에 이를 수 있으나 결투의 상대에게 외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할린 지역에서 씨름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에 씨름의 발전과 대중화에 대한 5각 협정이 체결되었다. 최근에 사할린주에서 한민족 씨름에 80여 명이 강습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과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신발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땐 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관찰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신발이 다를 것 같은데 유행을 따라 똑같은 신발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보면 계절을 따라 때로 번식한다는 나그네쥐를 보는 것 같았다. 눈높이를 낮추면 사람이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신발들이 사람을 업고 다닌다.

휴대폰 부품 회사에 다닐 때는 누가 통화만 하고 있어도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아는 사람이라면 전화기 뒷부분을 열어 부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하는 일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경찰이 되면 어떻게 보일까? 종교인은? 권력자는? 재벌은? 범죄자는?

작가로 살아가는 지금은 세상이 온통 이야기로 보인다.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둘러보면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눈길을 끈다. 한쪽 발이 몽개진 비둘기는 왜 고양이로 노려볼까? 남학생 목발에 달린 리본은 누가 매준 걸까? 군복을 입은 노인인 왜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실까?

한 사람의 삶은 수십 권을 받아써도 모자랄 이야기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놓는다면 즉시 이야기의 우주가 생겨날 것이다. 게다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사람보다 많은 동물과 식물, 무수한 물건들까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끌어안고 세상을 뜬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끝없이 아득한 세상. 자기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주인공들 옆을 작가들이 어슬렁거리며 걸닐질할 뿐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써내는 작품은 히말라야 산맥의 돌멩이 하나, 태평양 바닷가의 조개껍데기 하나가 아닐지.

생각하면 삶이란 한없이 작아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도 바라건대 내가 캐낸 이야기는 은하수의 먼지벌만큼이라도 반짝였으면 좋겠다. 누군가 별빛을 바라보듯 다른 존재의 삶도 기억할 수 있게 말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국방.외교

"사할린 동포 데려오자"... 소련과 극비 외교전

소련과 외교 협상 끝 영주귀국 가능

러시아 사할린섬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동포를 귀국시키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89년 수교조차 맺지 않았던 소비에트연방과 극비리에 외교 협상을 펼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을 통해 동포 귀환 문제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련 측은 일본을 제외하고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공개된 1989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노태우 정부는 사할린섬에 거주 중인 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소련 측과 비밀리에 외교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일본 정부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소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소련과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측의 협조로 사할린 동포 10가족이 제3국인 일본에서 국내 거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부는 국회의 협조 아래 사할린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 추진 계획을 세웠다.

당시 외무부는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사할린섬 방문을 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포 귀환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의 노력에 소련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애초 각국에 설치된 적십자사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던 소련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양국이 직접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를 논의하자고 청와대에 제의했다.

급물살을 탄 양국 간 논의는 지난 1989년 6월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소련을 방문하며 진전됐다. 사할린 동포를 위한 위문공연단이 한국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사단 파견이 추진됐다.

결국 같은 해 9월에서야 정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사할린 동포의 영구귀국 허용이 결정됐고, 12명의 교포가 영구귀국을 허가받고 부산에 도착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60여 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지금 규정에는 일련의 조건이 따르는데 가족 모두 러시아 연방 국민이어야 하며, 사할린주에 거주해야 하고, 가정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고, 가족 중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청과 실정을 분석하고 수급자의 부류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할린주에서 태어난 자녀와 가족이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산모가 교육이나, 휴가차, 치료차 다른 지역에 머물다 출산하여 얻은 자녀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가족 정책과 갈리나 쇼토코와 과장이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다자녀 가구 4가구, 돌린스크에서는 2가구가 보조금을 받았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오하,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에서는 각각 한 가정이 등록되었다. 15가구의 지원 신청은 사할린주 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다.

이 지원책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당시 56 다자녀 가구가 차량 구입비로 받은 보조금은 총 5천만 루블리에 달한다. 올해는 사할린 지역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1억 루블리 배정을 검토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10 многоде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соцвыплату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10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социальную выплату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льготы возобновили в январе. До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мьи, имеющие пя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выплаты есть ряд условий: все

члены семьи должны быть гражд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ожи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у них не должно быть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при этом обязательно наличие у кого-либо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 М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ситуацию,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и расширили категорию получателей. С этого года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могут семьи, дети которых рожд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о, вместе с тем, учитываются дети, которые были рожд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по причине нахождения матери на лечении, в отпуске, либо на обучении,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Щёктова.

Выплаты уже получили 4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2 семьи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 одной семье льготы оформили семьи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ов. Еще 15 заявлений сейчас — в стадии рассмотр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защиты.

Так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овала в 2017 году. Тогда автомобили с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56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выплат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올해의 가정>전국 경연에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의 참가를 권한다

사할린주에서 <올해의 가정> 전국경연대회 지역 단계의 예선 참가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참가 희망자는 거주지에 따른 사회복지센터 담당과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경연은 다음 부문들에서 진행된다.

<다자녀 가정>, <젊은 가정>, <농촌 가정>, <전통

계승 가정>.

우선 지방 단계에서 가정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선 우승자들은 올 5월에 (자가격리 정책에 따른 변동이 없는 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될 경연 결승전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하는 가정은 좋은 전통과 상호관계를 반영하고, 생활방식과 사회적 행사 참가에 대해 말해주는 사진과 동영상과 가지고 발표해야 한다. 모든 제출한 자료들은 전체 주제와 경연 부문에 적합해야 하며 지역 단계 우승자는 <올해의 가정>전국 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Семья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апреля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заявки от жителей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Желающих просят обращаться в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Молодая семья», «Сельская семья», «Семья —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Сначала семьи должны пройти испытания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Его победител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если не помешает карантин).

Семьям-конкурса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резентации, фото-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отражающие лучшие традиции 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б образе жизни и участи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Материалы также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бщей тематике и номинациям конкурса.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ура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я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ятся к открытию секции по ссирым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готовится к открытию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й в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Долинске, Невельске, Холмске, а также сёлах Пионеры и Костромск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Свою работу отделения планировали начать в первых числах апреля, однако открытие пришлось перенести согласно распоряжению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о мерах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и закрыты вс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Алексея Чун,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арендованы помещения для занятий,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ы с тренерами. Пока секции закрыты, ведётся запись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Принимаются ребята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6 лет. Для записи в отделение ссиры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обходимо зво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7 999 088-13-60, в Корсакове — +7 962 109-37-77, в Невельске — +7 914 092-84-99, в Аниве — +7 924 480-89-56, в Долинске — +7 900 426-78-08, в Холмске — +7 914 750-21-47, в Костромском — +7 924 186-33-30, в Пионерах — +7 942 282-88-08.

Секции начнут свою работу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спортивными объектами области после особого распоря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спорта.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бесплатно.

Ссирым — это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борьба. Поединки проходят на небольшой круглой арене, наполненной песком. Главная цель схватки — опрокинуть соперника на песок, используя силу рук, ног и спины. Победа достигается с помощью отточенной техники, но ее применение не наносит вреда участникам поединка, а возможность травм сведена к минимуму.

Для Сахалина это молодой вид спорта. В октябре 2018 года был подписан пятисторонний меморандум 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развитии ссиры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ой в области занимается около 80 ребят, проводя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На днях создатель и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Эйдинова отметила 75-летие. Яркий творческий человек — о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бы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ансамбля русской песни «Этнос». Явля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м работником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а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е за создание в ДШИ «Этнос»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сегодня педагоги эт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шили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Мы Вас любим,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Син Юлия Енчеровн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меня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 это человек, повлиявший на мою судьбу, человек, подаривший счастье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человек, вдохновивший меня на свершения, идеи, победы...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я испытываю к этому человеку, сложно описать словами, ими не передать, насколько я благодарна ей, насколько уважаю и люблю ее. За отношение, за внимание, за заботу и мощную поддержку, которые мы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и от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ы. Все, чего мы смогли достичь в работе, все наши успехи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лишь в этой благоприятной атмосфере, созданной человеком, увлечённым и очень любящим своё дело. За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у нас на работе и дома, в семьях,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всегда переживала вместе с нами. Ее мудрые советы стали очень ценными в жизни многих из нас.

Уже 26 лет я работаю в школе Этнос и очень горжусь, что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моей жизни связана с этим удивите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Ким Евг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Луч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РФ» (проект «Молодые дарования России»).

Кто для меня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Женщина-руководитель с большой буквы. Огромный преогромный авторитет. Ум, талант, мудрость, чувство меры и стиля — все собралось в одном человеке... Директор «от Бога». Требовательный, когда нужно, но в тоже время такой чуткий, внимательный, отзывчивый, всегда сопереживающий человек. Очень мудрая женщина. Казалось бы, в самой трудной и неразрешимой ситуации подскажет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решения, даст мудрый совет. Этнос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етище"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ы. И к нам она относилась, как к своим детям — с заботой, теплотой и вниманием. Из 24 лет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чти 20 лет я проработала с Наталией Семеновной. Я искренне рада, что трудилась под ее началом.

Хочу пожелать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е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тепла, доброты и счастья на долгие века. Гордо улыбаться, радоваться успехам школы, детей, внуков. Мы всегда с Вами! Мы Вас любим и уважаем!

Кан Анна Виталье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кала и каягым.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для меня, как вторая мама. Светлый, добрый человек. Мудрая женщин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сегда выслушает, поможет и подскажет.

К сожалению, мне не довелось с ней работать, так как я устроилась на работу в ДШИ Этнос в 2017 году. Но когда я здесь училась,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была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Она помогла мне поступить в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оего обучения, она всегда помогала и поддерживала меня.

Пожелать ей хочу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любви, счастья.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её доброту и любовь.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Люблю Вас.

Ким Анна Енчано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для меня добрый и отзывчивый человек. Знаю ее 25 лет, и постоянно удивляюсь



ее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она до сих пор думает о нас и переживает.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относится к нам, как к своим родным детям!

Хочу пожелать, конечно же,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море позитива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Чео Натал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ягым и вокала.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для меня мудрый и справедли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лантливый организатор, добрый и чуткий человек.

Помню, как долго я сомневалась в том, стоит ли идти работ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отделении или остаться в 15 школе учителем музыки. И вот 1 сентября 1995 года я пришла устраиваться в «Этнос» с трудовой книжкой. Хотела работать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но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своим волевым характером, сказала, что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нежелательно. И вот так я на протяжении 24 лет проработала вместе с Наталией Семёновной в «Этносе».

Уважаемая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Желаю Вам прежде всего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Пусть родные люди любят Вас, а коллеги ценят и уважают. Благополучия Вам и Вашей семье, душевн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и гармонии.

Пак Ван Сун (Лидия Сергее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кала, дансо и музыкальной грамоты.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для меня очень справедливый, хороший, умный человек. Можно сказать — идеал. Она была хорошим директором. Это был первый мой директор в ДШИ «Этнос». Пришла я в «Этнос» после музыкального училища в 2001 году. Посоветовала мне моя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музыкального училища. Сказала, что в ДШИ «Этнос» требуетс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на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мне предложила работу на дошко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преподавать хор, музыку и эстетику дошкольника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работав около 5 лет на дошко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предложила мне освоить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уховой инструмент дансо. Пригласил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чтобы мне провели стажировку. Проработала я с ней около 17 лет.

Благодаря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е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я преподаю духовой инструмент дансо детям и освоила еще один духовой инструмент — тхэпхёнсо, который аккомпанирует пханкут. Пханкут — это ансамбль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се это, конечно, благодаря Наталии Семёновне.

Хотела бы пожелать ей здоровья, оптимизма. Чтобы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окружали ее любовью и заботой, и всегда было прекр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Для учеников 1-2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телеуроки

Уроки для учеников 1-2 класс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е в режиме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и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школ, а в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м порядк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телеканале EBS.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для учеников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которые приступят к занятиям 20 апреля, подготовл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дополнение к телевизионным урокам ученик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из своих школ письменные задания по ряду предметов. Учителя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присутствие учащихся на уроках, используя раздел комментариев на специальных сайтах,

или путём обмена текстовыми сообщениями с их родителями. В связи с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ей вируса COVID-19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РК неоднократно переносило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следним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9 апреля к занятиям приступят ученики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средних школ и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школ старшей ступени. 16 апреля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нётся для учащихся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классов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 а также с четвёртого по шестой класс начальных школ. Ученики с первого по третий класс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приступят к занятиям 20 апреля.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день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15 апреля в РК будут открыты 14.330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В день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15 апре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будут открыты 14.330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воё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е право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избирател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99,1% участков будут расположены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или в зданиях с лифтом. Поскольку выбор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услови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Центризбирком обещает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збирателей. В частности, на всех участках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тепловизоры. Ожидая своей очереди, избирател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на расстоянии не менее одного метра друг от друга, а избирательные кабины и бюллетени будут продезинфицированы. Для избирателей с симптомами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выделяют специальные кабины. Центризбирком рекомендует всем избирателям приходить на участки в защитных масках. Пациенты больниц, а также находящиеся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аранти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в домашнем карантине с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по почте, если они подали заявки в период с 24 по 28 марта.

ВОЗ: Комплексная стратегия РК по борьбе с вирусом COVID-19 работает эффективно

Комплексная стратегия РК по борьбе с вирусом COVID-19, включающая актив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диагностику и отслеживание контактов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ает эффективн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Тедрос Адханом Гебрейесус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ругие страны должны последов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примеру, а также попросил Сеул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еспечению тест-системами и други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африканских стран к югу от Сахары. Глава ВОЗ пригласил Мун Чжэ Ина выступить с основным докладом на сессии Всемирной ассамбле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мае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это стало бы хорошей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ы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РК борется с вирусом COVID-19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открытости, прозрачности и демократии, минимизировав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людей и товаров. О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родолжать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другим странам.

РК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для защи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от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для защи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от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COVID-19. П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в стране подтверждён 241 случай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реди них 66 человек заразились во время лечения больных, трое я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центров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наличие вируса, 33 человека работают в обыч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е связанных с лечением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дальнейшее заражение, приём пациентов, где это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В таком режим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риём больных с простудными и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такими как гипертония. Прежде чем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ы должны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ется пациентов с симптомами респиратор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ют не посещать пациентов в стационарах и выполнять требования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Финанс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Samsung Electronics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оказались лучше ожидаемых

Финанс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0 года оказались лучше ожидаемых, поскольку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компенсировал спад продаж смартфонов 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Компания оценила свою операционную прибыль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март в 6 трлн 400 млрд вон (5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73% больше, чем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даж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оставили 55 трлн вон (45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4,98%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рост спроса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вызван тем, что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личных контактов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вируса COVID-19 резко увеличилас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передаче данных и повышении мощности серверов. (RKI)

Как Южной Корее и КНДР удалось справиться с COVID-19

Судя по последним событиям, обе Кореи - как Южная, так и Северная -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ются с COVID-19, хотя избра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ную тактику. Однако сейчас мы наблюдаем схожий результат: в обеих частя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улицам свободно разгуливают люди, работают магазины и рестораны, а сообщения про COVID-19 фигуриру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раздел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новости".

Когда в конце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власти КНДР приостановили авиационное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то в отношении мер Страны чучхе в мировых СМИ хватало ехидных комментариев. Масла в огонь подлили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шаги, когда КНДР стала оставлять на карантин даже грузы. С 13 февраля страна вообще ушла в полную изоляцию, прекратив работу абсолютно всех погранпереходов. Всем иностранцам, которые в то время оставалис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ло предписано оставаться п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без права покидать свои дома или территорию посольст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яда запад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не особо были рады карантину, а потому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едпочли вылететь единственным рейсом,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ьно ради этого осуществили корейцы 9 марта, вывезя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Те, кто остались в КНДР, признавали, что меры были очень строгие и напоминали чем-то домашний арест: никаких выходов в город, никаких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решен был лишь выезд грузовиков с мусором по маршруту "посольство - полигон для мусора - посольство", без каких-либо отклонений. С начала марта власти КНДР стали ослаблять меры, разрешив выходить в город и посещать некоторые объекты, список которых состав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равд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над Страной чучхе уже перестали смеяться, так как коронавирус бушевал уже всю в Китае, Южной Корее, а также стал перекидываться в Европу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Власти КНДР же постоянно заявляли одно и то же: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в стране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о многие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этому не верили, утверждая, что КНДР почти никогда не признается в наличии каких-то проблем, а некоторы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стали сообщать о сотнях умерши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прочем, информация о смертях в КНДР так и не нашла ины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На днях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хеньяне сообщило, что они получили ноту Протоко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КНДР, которая была адресована всем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м в Пхеньяне посольств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ней по сути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с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няты и им "вновь разрешено посещение всех столичных магазинов, ресторанов, предприятий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Центрального рынка на улице Тхониль". Ранее СМИ КНДР заявили, что 10 апреля власти КНДР намерены собрать на заседание свой парламент -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депутаты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перь уже можно точ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реакция КНДР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оказалась успешн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огда может бы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ы чучхе и их СМИ отнюдь не спешат сообщать о своих проблемах, но будь у них эпидемия COVID-19, это было бы трудно скрыть. Так или иначе информация уже бы просочилась и подтвердилась. Кроме того, вряд ли бы в условиях эпидем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позволили иностранцам вернуться к тому режиму,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овал в "докоронавирусные" времена. Сами ж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чучхе, если судить по видеоматериалам и фотографиям,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том числе иностранцы, также свободно гуляют по Пхеньяну. Пожалуй, здесь можно в полной мере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ем, что в своей страничке на Facebook написал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мментируя ситуацию с COVID-19 в КНДР: "Мы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восприняли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чередном ослаблении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действовавших здес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Расцениваем ее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едпринимаемых руководством КНДР мер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стра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нового типа".

Западные СМИ и эксперты также это признали. "Оглядываясь назад,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реакция властей КНДР оказалась оправданной", - написал англоязычный портал NK News,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новостях пр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о Южную Корею информации всегда было куда больше, правда и история борьбы южан с COVID-19 оказалась куда более драматичной, но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с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США и Европе, то из здесь Корея (правда теперь Южная) оказалась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жания.

Власти Юга хот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ждали прихода вируса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нятые меры, COVID-19 смог проникнуть в страну, хотя и не без помощи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секты "Синчхочжи", которые ввели в заблуждение местных медиков. В итоге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и примерно до середины марта ситуация выглядела достаточно угрожающей: количеств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быстро росло в главном очаге на юго-востоке, а коронавирусом медленно пробирался 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Кореи.

Правда, теперь и южнокорейцы смогли вздохнуть поспокойней. Число выздоровевших уже превысило 60 процентов, численность тех, кто побеждает инфекцию и выписывается из карантина стабильно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заболевших, а смертность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менее двух процентов. В стране же не вводился массовый карантин,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кафе, рестораны, мно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заведения, а народ чист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расслабился и начал устраивать массовые пикники. Это, кстати, и беспокоит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вирус отступает, но еще не побежден", 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ая эйфория может обернуться повторной массовой вспышкой коронавируса.

Так или иначе,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призна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сейчас хотя и не полностью пока освободилась от COVID-19, но как минимум смогла переломить ситуацию и сделала это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Югу добиться перелома, мы описывали подробно ранее, здесь лишь скажем, что сильно помог опыт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MERS в 2015 г., оперативная система отслеживания контактов всех зараженных и их изоляция, а также по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что все вводимые меры надо соблюдать, иначе потом может быть хуже.

Если же сравнивать то,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ситуация с COVID-19 на Юге и Севере Кореи, то очевидно, что страны пошли несколькими разными путями, хотя были схожи в том, что либо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КНДР) либ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инфекцию, решив, что лучше ограничить себя в чем-то и мобилизовать максимум ресурсов сейчас, чем столкнуться с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м кризисом потом. В итоге так и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теперь мы изучаем опыт обеих Корей, который доказал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ройки контролируют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Применяются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ые стенд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и анализа, платформа строительных сервисов. С помощью видеосвяз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блюдать з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Такой новый формат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скорость и каче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ов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Кроме того, оперативно отслежива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выявляются отклонения от плановых значений.

По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к работе подключаются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структур. Если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наруш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 формате ВКС дают разъяснения.

Для особого контроля работает платформа строительных сервисов –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ходе сооружения капит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на островах. Цифровой ресурс предоставляет графи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татус выполнения. Также дается прогноз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 текущем темпе. Платформ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вести на экран видеотрансляцию с камер, установленных на объектах, и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ход сооружения, оценить наличие техники и людей.

Отметим, чт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сохранить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и жилья,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3 месяц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троили 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Это на 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ольш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75 сахалинских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решили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с начала года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мьи, где воспитываются трое дет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ширны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 улучшению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ежегодно совершенствуется. Еще одну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решения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скоро получат семьи, где в 2020 году родился третий малыш.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ипотечного договора в коммерческом банке они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оциальной выплатой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на погашение остатка основного долга. Сейчас такая мер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только если договор заключен с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третьего ребенка остров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ют с 2014 года. Размер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 50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или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о не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эти годы выплато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более 2 тысяч семей.

–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программ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такж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выплат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помогаем семьям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расходы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на решение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Щёкотова.

Семьям с четырьмя и более детьми, состоящим на учете нуждающихся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которая покрывает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расходы на покупку жилья.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зависит от состава семьи и места приобретения квартиры и в среднем составляет до 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семье Мукаевых три дочери и сын. С помощью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новоселье справи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обрели просторную благоустроенную квартиру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 В новом гнездышке уютно и комфортно. Детям хватает места и для игр, и для учебы. Также пользуемся и другими льготами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Это очень суще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 считает мама четверых детей Олеся Мукаева.

Выплат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ущественно влияют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асть из этих мер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н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а Сахалине выявляют пневмонию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полностью реформирована работа референсного центра луче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КД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сюда направляют снимки все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у которых выявлено воспаление легких.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островитян в регионе задейство-

вали 13 компьютерных томографов. С их помощью медики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ят до 450 высокото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ыявляют от 6 до 20 пневмоний в сутки. Снимки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КДЦ для своеврем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патологии, вызванной вирусом SARS-CoV-2.

– У нас снимки проходят двойной и даже тройной контроль,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неточностей. В этой непростой работе участвуют 5 рентгенологов с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уровнем. Медицинский стаж у каждого – более пяти лет,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центром лучевой диагностик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Дмитрий Пшекарский. – Главная задача специалистов –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о и точно определить природу воспаления легочной ткани и установить случаи пневмонии, вызванны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Важно выявлять заболевание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чтобы приступить 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у лечению.

КТ-исследование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проходят вс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ходящиеся на карантине. Также он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ациентам с симптомами ОРВИ, пневмонии и бронхита.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выдает лечащий врач – при наличии показаний.

– Работать приходится по 24 часа в сутки. Это тяжело, но необходимо, – говорит врач-рентгенолог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Крукович. – Проводим мониторинг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нтролируем заклю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йонов и выставляем коллегиальные заключения,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ошибки.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с 6 апреля диагностика на всех компьютерных томографах в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а также в областном противотуберкулезном диспансере проводится круглосуточно.

Сахалинский педагог получила первую выплату из фонда взаимопомощ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ю детского центра «Универик» Анна Мельников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о время прямого эфир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Касса взаимопомощи»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вой вклад туда вносят крупные бизнесм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 оказывают островитянам,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или временно не получают зарплату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фонд можно через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также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цам, лишившимся работы. Только за вчерашний день удалось трудоустроить 14 человек. На островном рынке труда сегодня около 7 тысяч вакансий в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во время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 Все работающи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зарплату за март и за апрель. Чтобы работодатели 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сотрудниками, банки выдают беспроцентные кредит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разработал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трое снижается налог на имущество – с 1,5 до 0,5 процента. Эти и другие предложения легли в основу законо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областные депутаты рассмотрят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Во время прямого эфира разобрали частные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изнес Ирины Калиман связан с праздничной индустрией.

– Свадьбы, юбилеи, выпускные под запретом до лета. Авансы за торжества нужно вернуть. Наш магазин праздничной упаковки закрыт. Мы оказались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У нас есть подуш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чтобы продержатьс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а дальше будет трудно. При этом нужно платить кредиты каждый месяц,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Управляющ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О «Сбербанк» Наталия Лейдман ответила, что дл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действуют отсрочки по платежам. Заявления на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ю подали около 10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уже одобрили. Кредитные послабл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азрабатывает сейчас и ВТБ.

Отметим, что на порталах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и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тематика: вопросы к банкам. Все обращения от сахалинцев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тронули также вопрос аренды. Владельцы крупных островны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пошли на уступки и решили не начислять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за месяц простоя.

Владелица кафе обратилась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с просьбой оказ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развитие сервиса достав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обира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автомобиль и заказать рекламу.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ейчас он снизил ставки по займам – с 5-6 до 2-3 процентов. Уже одобрено займов на сумму свыше 2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ладельцы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фонд по телефону: 8-800-222-01-23.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спользует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ителей карантина

Одна из функций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распознавание лиц в системе «Визирь». Это разработка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Центр реч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ЦРТ),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экосистему Сбербанка. Технология способна обнаружить нарушителя, даже если он в медицинской маске.

За первые дни работы «Визирь» помог выявить более 20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игнорируют предписание главного санитарного врача и не соблюдают обязательный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Более 1000 камер фиксируют случаи их появления вне дома и передают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людям, вернувшимся из-за границы или с материка,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С доброво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фотографии пассажиров загружают в систему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начал применять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чтоб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блюдение карантина и обсервации и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 островах.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ЦРТ Дмитрий Дырмовский рассказал, что «Визир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применяе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 на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ах, транспорте, для охра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Этот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с полным циклом функций, проработанным интерфейсом выбрали и для работы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 Наша система функционирует в самых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Распознавание лиц строится на нейросетевом алгоритме, который анализирует доступную часть лица, а не сопоставляет расположение ключевых точек. Системе не важно, чем скрыто лицо: высоким шарфом или медицинской маской. Перекрытие до 70 процентов – один из специфических, но не блокирующих для нас факторов, – пояснил Дмитрий Дырмовский.

Отметим, что ЦРТ – глобальный разработчик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реч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истем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эксперт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машинного обучения. Биометрической системой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от ЦРТ оснащено более 10 стадионов и ледовых арен, более 20 транспортных объектов, 5 «безопасных город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аппарат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усилить реаним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й аппарат ИВЛ для больницы приобре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порта.

– Это значимый подарок для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ный врач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Константин Горфункель. – Мы должн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развитие ситуации с учетом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о всем мире. В реанимационно-анестезиолог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у нас укомплектовано шесть коек, у каждой есть аппарат ИВЛ.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оборудовать еще одно место дл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кислородная поддержка.

– В тако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пор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омочь наше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Корсаковски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Руслан Румянцев. – Эту эпидемию можно победить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и просто жителей.

Оборудование уже готово к работе и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спасения людей с тяжелыми респираторными осложнениями. Техника отвечает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которые стоят перед реаниматологами при лечении патологий дых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тяжелой пневмонии.

– Это современный аппарат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имеет в своем арсенале режимы как искусственной, так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 пояснил заведующий реанимационно-анестези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Анатолий Кустов. – Такой аппарат – хорошее подспорье реаниматологам в любое время, а не только в период подъема респираторных вирус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мимо аппарата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нужд корсаковской больницы приобрели противопролежневые матрасы, пульсоксиметры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жителям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2. 국제 교류를 이끌어 온항구 도시

부산은 고대에 이미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쳤던 국제 도시였다. 특히 일본과의 왕래가 가장 잦았는데,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초부터 양국 간 평화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일행이 출발했던 항구이기도 했다. 부산의 국제 교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부산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한 국경 도시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부산항은 한국의 수출입 제1관문으로서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에 위치하여 동북아 물류 유통 허브항으로서 잠재력도 매우 중요하다.

부산은 전국 수출입 컨테이너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2,166만 3,000TEU로 2017년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부산의 해양 교류사는 멀리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안가 마을인 '다대포'의 지명이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720년)에 '다대라원(多大羅原)' 또는 '다다라(多多羅)' 등으로 등장하는데, 이로써 역사 시대 초기부터 부산이 한일 간 통상과 교류의 주요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역 맞은편 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은 1884년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도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부산의 명소 중 하나이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벽화도 흥미로운 볼거리이다.

고대 동북아 교역의 중심

한국의 13세기 역사서 『삼국유사』에도 고대 부산 지역의 해양 교류 흔적이 남아 있다. 금관가야(1~6세기)를 건국한 김수로왕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하였다는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허황옥 이야기는 김해 수로왕릉에 있는 쌍어문(물고기 쌍으로 그려져 있는 문양)을 통해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쌍어문 문양이 인도 문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허황옥의 인도 도래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야국의 해양 교류는 비단 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가야국의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이를 증명한다. 5세기 초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수많은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제철 기술과 스에키(Sue ware 須惠器) 토기 제작 기술을 전래함으로써 일본 고대 문명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지인 '김해(金海)'는 그 이름에서부터 철 생산이 풍부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닷가와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가야의 여러 연맹 국가들은 풍부한 철광을 바탕으로 동북아 교역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한나라 이후 다변화된 동북아 사회에서 가야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대륙을 잇는 요지였다. 또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바닷길이 만나는 교역로에 위치하여 이 바닷길을 통해 자국의 풍부한 철을 주변 여러 나라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일본서기』는 4세기 중반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에게 보낸 물품 중에 덩이쇠(鐵錠) 40매가 포함돼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철을 얇게 두드려서 만든 덩이쇠는 당시 중요한 생산 소재로 이것을 가공하여 각종 철기류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한다. 덩이쇠는 백제·신라·일본 열도 무덤에서도 종종 발견되지만, 특히 가야 지역에서는 수십 점이 출토되어 부장품으로서만이 아니라 화폐 기능과 철기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이나타운 초입에 있는 '텍사스 거리'에는 외국 선원들을 위한 관광 상품 가게와 클럽들이 즐비하다. 부산항에 외항 선박이 들어오면 외국인 선원들로 붐비는 거리이다.

차이나 타운과 왜관

부산에는 1884년 청나라 영사관이 세워진 것을 계기로 형성된 차이나 타운이 현재도 남아 있다. 부산역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나 타운에는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점과 중국 음식 재료를 파는 상점, 환전소 등이 많으며 이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다.

이곳 차이나 타운은 조선 후기(17~18세기) 부산항 매립과 해관 부지 공사 등을 위해 유입된 청나라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완성되었고, 현재는 화교 3~4세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초창기에는 자국의 지원 아래 손쉽게 부산에 정착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 들어온 화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1953년 부산역이 대화재로 소실되자 인근에 있던 집창촌이 차이나 타운으로 옮겨오면서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후 1992년 한중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고, 1993년 부산시와 중국 상해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자매결연을 기념해 1999년 '상해 거리'란 명칭을 얻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매해 '차이나 타운 특구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부산에는 조선 시대에 일본인이 거주했던 마을 '왜관'도 존재했다. 고려 말 14세기부터 창궐했던 왜구를 단속하고 일본과의 외교와 무역을 담당시키기 위해 조선 조정이 개항지에 건물을 지어 주었던 곳이다. 1407년 부산의 부산포와 진해의 제포 두 곳에 왜관이 설치되었고, 1426년에는 울산의 염포에 한 곳이며 추가되어 '삼포왜관(三浦倭館)'이라 불렸다. 그러나 1544년 통영 지역에서 왜인들의 약탈 사건이 벌어져 삼포 중 부산포 왜관만 유지하게 되었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는 에도막부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후 처리에 따라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에 왜관이 재차 설치되었는데, 조선 후기 부산포 왜관에는 약 500명 가까운 일본 남성들이 거주했다고 한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초량 지역의 왜관은 그 규모가 총 10만 평 정도로 생활 공간을 비롯해 일본에서

온 사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왜관의 건축물은 조선 측에서 만들어 주었으나, 건물 내부는 일본식 실내 구조에 다다미를 깔았다. 왜관 밖에는 일본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왜관 내에서는 일본 의상을 입고 일본식 칼을 차고 다녔기에 조선 측의 작은 일본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류의 기점

고대 이래 한일 양국은 거듭된 전쟁으로 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시기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약 210여 년에 걸친 에도막부 시기는 조선통신사를 통한 평화의 시대였다. 조선통신사란 양국이 임진왜란 이후 국교를 재개하고 12회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선린 외교 사절을 지칭한다. 인접한 국가 간의 이 같은 평화적 문화 교류는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부터 한일 양국의 두 시민단체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朝鮮通信使緣地連絡協議會 Liaison Council of All Places Associated with Chosen Tsushinshi)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19세기 한일 간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 기록물」(Documents on Joseon Tongsinshi/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기록물들은 한국이 보관하고 있는 63건 124점과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48건 20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산에서 이루어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제1호 이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등재 제1호라는 점, 또한 양국 시민의 교류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통신사의 규모는 대략 400~500여 명에 달했다. 통신사 행렬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 외교 활동 준비 및 날씨와 풍향 등을 살피며 부산에 머물렀다. 대한해협의 바닷길이 험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신사 일행은 해신제를 지낸 후 항해하기에 좋은 날을 잡아 6척의 배를 타고 영가대(永嘉臺) 선창에서 출발했다.

일행은 쓰시마에 상륙하여 이후 최종 목적지 에도(현 도쿄)에 이르기까지 53개 역을 지났으며, 이때 동원된 인부만 33만 8,500여 명, 동원된 말이 7만 7,645필(1711년도 제8차의 경우)에 달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가히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 아닐 수 없다.

에도막부의 환대 또한 극진했다.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기 전 쇄국 체제를 유지했던 일본에서는 조선 통신사 방문을 큰 축제로 여겨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은 에도막부의 집행부는 물론이고 무사와 서민, 상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대단하였다.

일본인들은 조선 문인들과의 접촉을 영예로 생각하여 사절단이 숙소에 들게 되면 그곳으로 몰려와 시의 창수(唱酬)와 비평, 서화와 휘호 등을 간청하였다. 이에 통신사 일행들은 눈코 뜰 사이가 없이 바빴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일본인들의 청에 응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진풍경을 담은 기록이 현재 한국과 일본 전국 각처에 다수 남아 있으며 회화 자료로도 많이 전하고 있다. 당시 에도 문인들의 조선 문화 흡수는 놀랄 만했고, 이는 에도막부의 문예 부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때 일본에서 간행된 문답집이 백 수십 권에 이르고, 우리 측의 문인과 관료들도 귀국한 다음 여러 권의 훌륭한 시찰 보고서를 남겨, 당시의 일본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한류 열풍에 못지 않았던 문화 교류였다.

그 길의 출발점이 항도 부산이었다. 지금도 부산은 동아시아 및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 교류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규모는 대략 400~500여 명에 달했다. 통신사 행렬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 외교 활동 준비 및 날씨와 풍향 등을 살피며 부산에 머물렀다.

대한해협의 바닷길이 험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화진(Park Hwa-Jin 朴花珍)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출처: <https://koreana.or.kr/>

사할린주한인협회, 잔류 사할린한인동포 1세 조사

사할린주한인협회는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의 배우자)을 데리고 영귀국을 희망하는 한인 1세(1945년 8월 15일 전쟁)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문의 : 메 일 82kor65sakh@mail.ru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т мониторинг лиц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рожденные до 15.08.1945 г.),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одним ребёнком (сын с супругой или дочь с супругом).

Все вопросы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 82kor65sakh@mail.ru.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1980년대에 본 신문사에서 근무하셨던 김수만 씨가 모스크바에서 중환 중에 지난 4월 8일 향년 6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슬픈 소식이 새고려신문사에 전해졌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신문사(그 당시 <레닌의 길로>)에서 번역원, 기자, 편집부 부국장으로 활약하신 김수만 씨는 수준 높은 우리말 전문가로, 밝은 성격으로 사원들과 선배들의 존경을 늘 받아오셨습니다.

신문사 퇴사 이후 전자기술 전공자로서 삼성 전자에서 근무하셨고 정년퇴직하시고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김수만 씨는 신문을 그만두신 후에도 저희들을 잊지 않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할린 한민족지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충격적인 비보를 접한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은 김수만 씨의 밝은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비탄에 잠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사원 및 현 사원 일동

8 апреля 2020 г. в Москве на 69-м году жизни скончался Ким Су Ман. Ушел всеми уважаем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 ОСК.

Светлый ум, талант, трудолюбие, честность и порядочность—все это он направлял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щества. Ким Су Ман внес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жизнь Общества, потеря невосполнима. Ким Су Ман прожил достойную жизнь, оставив после себя добрые дела.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прекрасном человеке, Ким Су Ман, навсегда сохранится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а его имя - в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в связи с кончиной Ким Су Мана.

МОО ОСК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8 апреля 2020 года ушел из жизн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 ОСК Ким Су Ман.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койного. Его потеря невосполнима. Трудолюбие, честность и порядочность он направлял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Память о нем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сердцах тех, кто его знал.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신 신동식 씨 부인 이금옥 씨께서 병환으로 인해 2020년 4월 7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인천시에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에에 젖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이금옥 씨가 2020년 4월 7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중환 끝에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비보를 접한 우리 동창생들의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이금옥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마음 속에 새겨 두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아울러 비에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1963년도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 전문학교 조선어과 졸업생 일동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